제언

2012년을 보내며 국내 산업보건분야의 변화는 무엇인가?

연세대의과대학
노 재 훈

2012년은 흑룡의 해로 시작하여 4월, 국회의원 선거를 거쳐 12월, 우리나라의 18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과정을 거치는 변화와 도약의 한 해이다. 또한 여름에는 런던 올림픽의 열기로 뜨거웠던 한 해이기도 하다.

국내 산업보건분야도 정치사회분야 못지않게 많은 변화가 있던 한 해였다. 이에 산업보건 12월호에서 2012년의 산업보건분야를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은 모 전자회사 반도체 사업부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근로자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 주었다. 금년 초부터도 모전자회사의 백혈병 사건은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었고 대선 후보들도 피해자들과 면담하였다.

얼마 전 역학조사를 기초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개선하여 업무상 질병의 인정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는 소식도 있다. 명확한 원인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화학물질이 원인인 모 전자회사 백혈병 사건을 계기로 국내 산업보건분야의 화학물질관리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MSDS에서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의 명칭, 구성성분을 기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다. 이 조항으로 영업비밀이 남용되어 MSDS제도의 목적인 알권리가 줄어들 수 있었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 비밀의 화학물질을 제외하고 기타 화학 물질에 대해서는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에 발암성 물질만을 한정한 것을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물질 등으로 범위를 넓혔다.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이러한 유해물질을 특별관리물질로 개정하고 관련 조항을 안전보건기준에 신설하여 작업환경관리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매년 유해성 · 위험성 평가 후 관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도 발암성물질 187종, 생식세포 변이원성물질 38종 그리고 생식독성물질 20종을 등재하였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모전자회사 백혈병 사건으로 국내 화학물질관리에 대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올해는 화학물질 관련 대형사고도 있었는데, 8월에 모 화학공장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공장의 1,3-다이옥산 폭발 사고로 근로자 8명이 사망하였다. 이 사건에서 폭발 사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1,3-다이옥산의 노출농도는 어느 정도였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으며 향후 작업환경측정대상 물질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9월에는 불산 누출사고로 지역 주민대피와 유치원, 초 · 중학교에서 휴교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하여 인근 사업장의 옥내 공기 중 불화수소 농도를 측정하였다. 두 건의 대형 사고는 폭발을 동반한 안전사고이나 대상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근로자 만성 건강장해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2012년에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석면관리에 대한 관심이 한층 고조된 한 해였다. 특히 감리제도에 대한 신설로 산업보건분야 종사들의 활동영역이

일부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석면 폐기물 처리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규정은 미흡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석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석면 발산원을 밀폐,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개인보호구 지급 · 착용 등 보호 조치가 제정되었다.

고열작업, 분진, 방사선, 병원체, 석면, 금지 유해물질의 취급 근로자에 대해서는 세척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환경미화원 등 실외 청소 근로자 등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서 환경미화 업무, 음식물 쓰레기, 분뇨 등의 수거 · 처리 업무, 폐기물 · 재활용품의 처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세면 · 목욕시설, 탈의 및 세탁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WHO의 국제암연구기관(IARC)은 야간근무를 발암요인으로 규정하였다. 종양 발생을 억제하는 호르몬의 일종인 멜라토닌은 주로 밤에 분비되는데, 주간이나 빛이 있으면 멜라토닌은 분비되지 않는다. 따라서 밝은 조명 아래서 작업하는 야근 근로자는 멜라토닌 분비가 저하되어 상대적으로 종양 발생의 위험이 높아진다. 특히 야간 근무와 주간 근무가 교차되는 교대근무는 종양 발생의 더 위험한 요인이며 이러한 내용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이다.

2012년의 산업보건분야는 다른 해에 비해 많은 대형 사고와 이슈가 있었다. 이에 따라 몇 개 분야에서 법적 개선도 있었으며 산업보건분야의 새로운 변화와 도전이 있었다. 교대근무와 같은 발암성 요인에 대한 관심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산업재해 발생이 많은 건설업종에 대한 산업보건학적 접근도 관심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2013년, 내년에도 불확실성이 높은 산업보건의 문제는 지속될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문적 열정과 지속적인 산업보건분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